

중국, PVC 100만톤 프로젝트 추진

Zhongkexin-Yili 합작 CA 100만톤도 ... 매출액 100억원에 수익 25억

중국 Erdos 지역에서 중국 최대인 PVC(Polyvinyl Chloride) 100만톤 프로젝트가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Guangzhou Zhongkexin Group과 Yili Resources Group은 최근 내몽고의 Hohhot에서 PVC 100만톤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중국은행 내몽고지점과 Yili Chemical Industrial도 PVC 프로젝트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고, 내몽고의 Sanwei Ferrous Alloy와 Erdos Yide Resources는 Calcium Carbide 100만톤 플랜트 합의계약을 했다.

Yili Chemical Industrial은 Guangzhou Zhongkexin Group, Yili Resources Group, Zhongwu High-tech Materials 및 Yili Science & technology Industrial의 합작기업으로 Erdos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본금이 6억에 달하고 있다.

Erdos 프로젝트는 PVC 100만톤 및 CA(Chlor-Alkali) 10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며, 매출은 100억에 달하고 수익도 25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작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실행될 예정인데 1단계에서는 PVC 50만톤 및 CA 5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2단계에서 각각 100% 증설할 계획이다. 합작기업은 2004년 4월 설립되고 2005년 9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며, 2단계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유틸리티를 포함 28억을 투자하는데 매출이 50억, 수익은 12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Calcium Carbide 프로세스를 채용하는 1단계 PVC 50만톤 프로젝트가 완료되어도 최대공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화학저널 2004/05/25>